

농·산촌 관광마을 체험

- 인사말 -

반갑습니다.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을에 사시는 분들께서 기뻐해 주시고 체험관광에 참여한 가족 분들이 기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념식수까지 해 주셨는데 저로서는 과분하게 감사한 마음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나무도 ‘느티나무’ 인데 ‘느티나무’ 는 국민모두 사랑하는, 동네의 상징이자 사랑받는 나무입니다. ‘느티나무’ 는 장롱재료로 가장 많이 쓰이는 아름다운 재료로 한국 사람들의 정서를 대변하는 나무입니다. 이런 나무를 기념식수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오래오래 여러분과 이 마을을 기억하겠습니다.

목적이 있어서 이 마을에 왔습니다. 오니까 자랄 때 고향마을 같은 포근한 마음 듭니다. 어릴 때 고구마 순을 많이 심어봤습니다. 어릴 때 농토를 다 팔아서 가난해 어머니가 고구마 순을 심어 내다팔아 학비를 댔기 때문에 고구마순만 보면 어머니가 생각납니다. 오랜만에 고향을 느꼈습니다. 뭉클하게 느꼈습니다. 자랄 때가 생각납니다. 아이를 키울 때 한 달에 두세 번 고향에 데리고 가 키웠습니다. 아이들이 초, 중학교 다닐 때까지 고향에 데리고 갔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농촌을 잘 알고 할머니, 할아버지 품에 안기게 하기 위해 일부러 아이들을 데리고 내려갔었습니다.

얼마 전에 손녀를 얻었는데 지금 걸음마 하는데, 초, 중학교에 가면 고향이 어디 있는지, 사람과 어울리고, 자연과 어울리고, 사람과 사람이 어울리는 기본적인 체험을 어디서 할까 걱정스럽습니다. 제 욕심에 은퇴하면 제 아이들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찾아갈 수 있는 농촌, 시골에 가서 터 잡고 살면 어떨까 궁리중입니다. 혼자만이 아니고, 농림부장관에게 아이들이 자라날 때 자연환경을 알고 농촌을 인정하고 느끼는 생활환경, 농촌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제안했습니다.

농촌은 젊은 사람이 떠나고 노인들만 남아 있다. 젊은 사람들이 다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경제가 어려워 떠났습니다. 은퇴한 사람이라도 돌아와 나와 남의 자식과 어울려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책으로 궁리하고 있습니다. 일부 정책으로 착수해 진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마을도 농촌을 위해 정책적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발전시켜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와서 확인해보고 싶고 정책을 더 확장시켜 계속할거나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공부하러 왔습니다.

공부 많이 했습니다. 도시인의 여유로운 삶을 위해 전국토의 재편성, 농촌을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중입니다. 지난번 러시아를 방문했는데 모스크바가 서울보다 넉넉해 보이긴 했는데도 모스크바 사람들은 삭막하다고해 모스크바시민들에게 정확치는 않으나 60여평씩 나누워 주어 땅을 가꾸고 조그만 방갈로를 지어 이용하는데 그것을 ‘다차’ 라고 합니다.

결국 도시에 사는 사람과 농촌의 뿌리를 연결하는 것이 정서적으로 좋은가 봅니다. 우리도 꾸며보자는 욕심이 있어 확인하러 왔습니다. 여기 와 보니 정책은 뒷전으로 느껴질 정도로 자연이 반겨주고 여러분이 반겨주고 물도 맑고, 이것저것 해 봤고, 감자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가슴이 벅칩니다. 옛날 생각 많이 났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